



2026. 6. 17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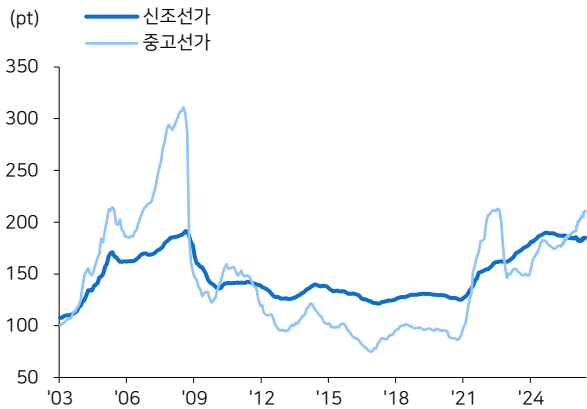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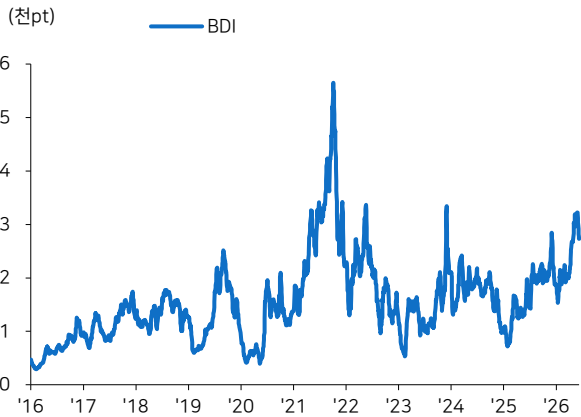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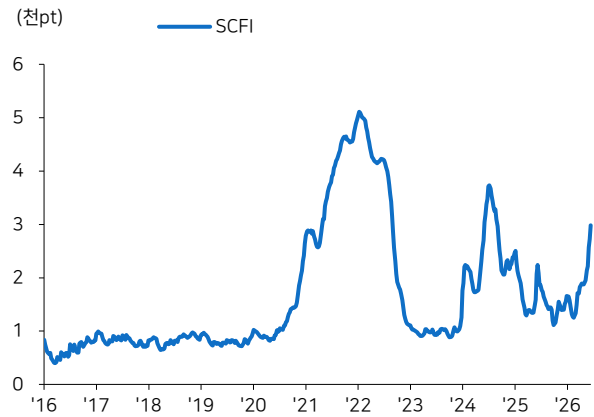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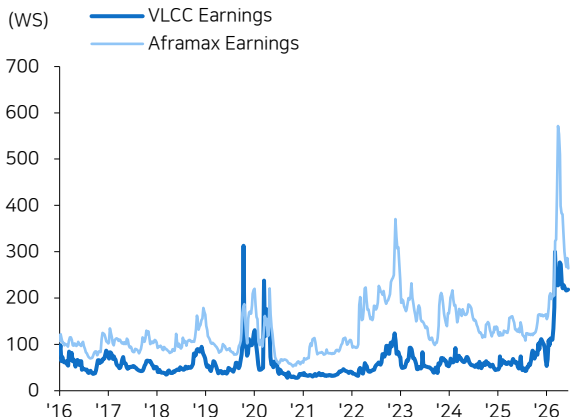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20.0p (-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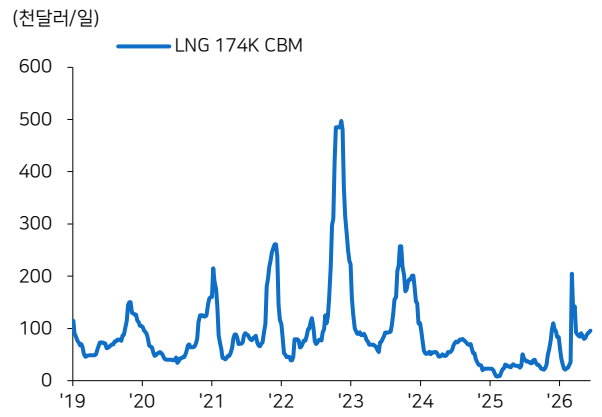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985.2(+258.7 WoW)



VLCC Spot Rate 218.3WS (+1.6p WoW)



LNG Spot 운임 96.0천달러 (+3.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현대중공업, 선체 관리 자동화 솔루션 개발 나서 (주간한국) <https://zrr.kr/Yxtn2V>

HD현대중공업이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및 KCC, 타스글로벌과 함께 선체 상태 진단부터 클리닝,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토털 힐 케어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사들은 자율주행형 수중 로봇 기반의 선체 관리 기술과 선박 운항 데이터를 연계한 연비 최적화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하며, 조선·도로·로봇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업계 최초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통합 솔루션을 통해 선박 연료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글로벌 선박 수리·정비 시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캐나다서 작심 발언 "나토나 인도-태평양이나 이분법 넘어서야" (더구루) <https://zrr.kr/IIEdcs>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해외사업단장이 캐나다 현지 정치 전문지 기고를 통해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선정이 NATO와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됨. 정 부사장은 한국의 잠수함 도입이 나토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검증된 성능의 KSS-III 모델과 빠른 납기, 방산을 넘어선 포괄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짐. 이번 기고는 캐나다 정계 인사들에게 한국형 잠수함의 경쟁력을 설득하고 나토 중심의 기존 안보 논리를 넘어서는 다각적인 파트너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알려짐.

'60조 잠수함 수주' 발표 앞두고...李대통령, 독일-캐나다와 잇단 '회담' (머니투데이) <https://zrr.kr/2n2tS0>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인 CPSP 수주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 회의에서 경쟁국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이어서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만나 6.25 전쟁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국방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해짐.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구성된 원팀과 독일의 TKMS가 최종 후보로 올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짐.

'AI 입은 선박' 만든다...울산시, 미래 조선산업 대전환 시동 (뉴시스) <https://zrr.kr/86HTtf>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미래형 선박 플랫폼 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 401억 원을 투입하여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HD현대의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소 상생형 인공지능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된다고 전해짐. 울산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국제 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표준 강제화에 대비한 국산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알려짐.

Petrobras eyes potential FLNG solution for pre-salt cluster (Upstream) <https://zrr.kr/1B7ur3>

Petrobras가 산토스 분지 프리솔트 생산을 위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재개했다고 알려짐. 과거 2011년 도입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중단하고 파이프라인 건설로 방향을 선회했던 바 있으나 최근 FLNG 공급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해짐. 현재 Petrobras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대신 기존 파이프라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Sergipe-Alagoas 분지의 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입찰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UK targets ships sold into Russian shadow fleet in new sanctions package (TradeWinds) <https://zrr.kr/bR06qq>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대상인 Arctic LNG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화물을 운송해 온 LNG 운반선 4척을 포함해 러시아 전쟁 경제를 지원하는 선박 총 27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보도됨. 해당 LNG 운반선들은 올해 2월 오만의 Asyad Shipping이 매각한 노후 선박들로, 이후 선명과 국적을 변경하며 러시아 선단에 편입되어 운항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영국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운영하는 선박 관리자 및 보험사 등을 정조준했다고 전해짐. 이번 제재는 G7 정상회의와 맞물려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되었으며,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구축을 지원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